

# 青少年 問題의 教育的 一考察 —教育的 側面의 問題點 診斷을 中心으로—

李學柱 · 張起豊

教育學專攻

(1985. 9. 26. 접수)

## 〈要 約〉

青少年 問題는 오늘날 우리 社會의 가장 심각한 사회문제 중의 하나로 擡臺되고 있으며, 그 深刻性은 날로 더해가는 느낌이다. 特別히, 청소년 범죄의 質的인 변화와 학생 범죄의 急増 추세는 우리에게 教育力의 強化를 요정하고 있다. 따라서 本 論文은 青少年 問題를 教育的 側面에서 고찰한 것으로, 청소년을 바람직한 방향으로 지도하기 위한 教育的 指針을 제공하려는데 그 目的이 있다. 이러한 目的을 성취하기 위해 청소년 관계의 先行 研究文獻을 理論的으로 考察하고 統計 資料를 分析하였다.

結論的으로, 청소년에 대한 기성세대의 教育的 責任이 강화되어야 하겠으며, 그들의 꿈과 理想을 펼칠 수 있는 教育環境이 마련되고 社會全體가 教室이라는 認識이 확산되어야 할 것이다.

## An Educational Review on the Youth Problems —A diagnosis of problems from the perspective of education—

Lee, Hak-Joo · Chang, Ki-Poong

Major in Education

(Received September 26, 1985)

## 〈Abstract〉

The youth problems are being on the rise as one of the most serious social problems of our society today, their seriousness have a feeling to become worse day by day. Especially, the qualitative change of juvenile delinquency and rapidly increasing trend of student-crime are asked us for strengthening the educational power.

Therefore, this paper is to review on the youth problems from the perspective of education, aims at offering an educational guideline for instructing young boys and girls toward a desirable direction. To accomplish this purpose, this paper examined the preceding research literatures theoretically, and analyzed statistical data.

Conclusively, the educational responsibility of the older generation to our younger generation should be strengthened, the educational environment that spreads out their dream and ideal will be provided, and the recognition that the whole society is classroom should be disseminated.

## I. 序 論

### 1. 研究의 必要性 및 目的

오늘날 青少年 問題는 우리 社會의 가장 심각한 사회문제 중의 하나로 擡臺되고 있으며, 그 深刻性은 날

로 더러가는 느낌이다. 물론 이러한 靑少年 問題는 사회변동에서 비롯된 하나의 현대사회적 產物<sup>(1)</sup>이기 때문에 特定 국가나 체제를 넘어선 현대사회의 보편적인 현상이라고 봐야 할 것이다. 이렇게 時代的 現상의 대상이 되는 靑少年은 어느 시대, 어느 국가를 막론하고 그 시대, 그 국가사회의 내일을 이끌어갈 主人公으로서 또한 한 나라의 장래를 결정할 수 있는 귀중한 潛在的 인적 자원으로서 認識되어 왔으며, 전세계적으로 그 人口構成比가 높아질에 따라 점차 사회에서 하나의 강력한 세력<sup>(2)</sup>이 되어가고 있다.

우리는 오늘날 생활수단이 갈수록 多岐해지는 산업사회에 살면서 경제적으로는 과거보다 훨씬 풍요로운 삶을 살게 되었다. 그러나 이렇게 경제적 여건이 改善된 만큼 우리의 사회의 경진적, 도덕적 의식수준도 向上되었는가는 의문의 여지가 많다고 하겠다. 우리 사회의 만연된 金錢萬能主義, 자기만을 아는 利己主義, 목적을 위해서는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는 僞善과 欺騙, 소비만을 목적으로 하는 享樂性向<sup>(3)</sup> 등이 각각나오는 靑少年들에게 바람직하지 못한 態度나 價値觀을 은연중에 심어주고 있으며, 또한 가정세대 가치관에 대한 否定과 가정에서의 소외감, 人格形成을 위한 입시위주의 교육, 먹고 마시고 즐기자는 식의 각종 유흥업소와 퇴폐산업의 범람 등이 靑少年 탈진을 부추기고 있는 듯한 느낌이다. 이러한 狀況은 어린이가 어른의 거울인 것처럼, 잘못되어 가고 있는 사회의 病理가 우리의 靑少年들에게 그대로 投影되어 나타나는 결과라고 보아야 할 것이며, 이와 같은 결과로 인해 청소년 비행이나 범죄가 量的으로 급증하고 組織化, 凶惡化, 暴力化, 年少化의 경향을 띠어 質的인 변화를 보이고 있는 동시에 學生 犯罪가 급격히 증가하고 正常 家庭 청소년들의 비행과 社會經濟的 地位가 중류층 이상 가정 청소년들의 범죄가 증가하고 있다<sup>(4)</sup>는 사실은 우리에게 커다란 警鐘이 된다고 하겠다. 특히 지난 해의 경우만 보더라도 강도의 43.4%, 강도·살인의 45%, 강도·강간사건의 49%가 10代 靑少年들에 의해 저질러졌다<sup>(5)</sup>는 것은 教育의 不在를 실감케 하는 매우 충격적인 사실로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靑少年期는 인생주기(life cycle)에 있어 아동기와 성인기 사이의 중간기로서 感受性이 예민한 시기에 해당되기 때문에 가정이나 학교나 사회의 不健全하고 유해한 환경에 쉽게 同化되며 아울러 많은 갈등을 경험하게 된다. 靑少年들이 겪는 갈등이 적절히 해소되지 못할 때 그들의 행동은 反社會的인 것으로 표출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그들에 대한 특별한 관심과 지도가 요청된다고 볼 수 있다. 그리하여 정부에서도 1964年度 내무부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靑少年 保護對策委員會<sup>(6)</sup>를 설치·운영하기 시작하였고 '77년에는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靑少年對策委員會<sup>(7)</sup>로 확대·개편함으로써 靑少年 問題에 일하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표명하였으며, '82년 11월에 청소년 비행에 관한 국제회의를 개최하는 동시에 '83년 9월에는 한국 청소년연맹 부설기관으로 韓國靑少年研究所가 설립되어 靑少年에 관련된 제반 문제의 본격적인 연구를 수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國內의 발전적 동향과 비슷한 1979년 제34차 유엔총회에서는 급변을 「국제 청소년의 해」(IYY)로 선포하여 靑少年에 대한 국제적 이해와 관심을 고취시키기에 이룬 만큼, 靑少年의 전적육성이라는 전 世界가 공통의 관심을 갖고 추진해야 할 시급적 과업으로 등장하게 되었다.

그러나 오늘날의 靑少年을 내일의 전전한 社會人으로 육성하는 여러 방법과 수단 가운데 제일의 요건이 가장 전극적인 機能을 가진 것은 教育이라고 말할 수 있고, <sup>(8)</sup> 教育을 통해 각자의 가치관을 변화시키고, 문제 인식의 범위를 확대시키는 동시에 문제해결의 기대수준을 높일 수 있기<sup>(9)</sup> 때문에 靑少年 問題에 대처하기 위한 교육의 역할은 점점 중요해지고 있다고 보겠다. 무릇 모든 문제는 그 문제의 원인을 정확하게 진단하여 문제해결의 길라잡이를 찾을 수 있는 것인 만큼 이 관점에서 靑少年 問題도 예외일 수가 없다. 다시말해 청소년 비행이나 범죄를 유발시키고 있는 주요 문제정향은 진단하고 그에 따른 教育的 課題를 探索해 보는 일은 매우 意義있고 必要한 작업이라고 생각된다.

(1) 靑少年對策委員會, 「靑少年白書」, 서울: 文教部, 1983, 3면.

(2) R.M. Lerner & G.E. Spanier, 「Adolescent Development: A life span perspective」, New York: McGraw-Hill Book Company, 1980, p.XIX.

(3) 「東亞日報」, 1981年 5月 8日字, 2面.

(4) 李靑昌外, 「靑少年 意識構造 및 形成背景」, 서울: 韓國教育開發院, 1983, 14-15面.

(5) 「한국일보」, 1985年 5月 4日字, 5面.

(6) 韓國經濟 誌1932호.(1964. 9. 11).

(7) 韓國經濟 誌8670호.(1977. 8. 27).

(8) 行政改善調査委員會委託調査研究報告書, 「靑少年 行政改善을 위한 研究」, 서울: 中央教育研究所, 1968, 171面.

(9) 具碩燾, 「靑少年問題와 教育의 役割」, 「교육」 誌11호, (1979. 12), 68-69面.

따라서 本 論文은 靑少年 비행과 범죄의 溫床이 될 수 있는 문제 狀況을 가정, 학교, 사회, 성, 가치관 의 측면에서 分析하고 教育的 課題를 제시함으로써 靑少年을 바람직한 方向으로 지도하기 위한 教育的 指 針을 제공하려는데에 그 目的이 있다.

## 2. 研究의 方法 및 限界

本 研究은 靑少年에 關連된 先行 研究文獻과 각종 統計 資料의 分析을 통해 이루어졌으며 다음의 세 가 지 사항을 考察하였다.

첫째, 오늘의 靑소년들을 이해하기 위한 靑少年에 대한 개념 정의와 發達上의 諸 特性을 고찰하고 둘째, 최근의 靑소년 범죄와 비행의 動向과 特徵을 분석하여 셋째, 가정, 학교, 사회, 성, 가치관교육의 측면에서 문제점을 진단하고 教育的 課題를 제시해 보았다.

이러한 내용을 다루어 나가는데 있어 本 연구가 갖는 限界로는 문제점의 진단이 國內의 연구결과에 기초 해 이루어진 관계로 外國의 사적나 서로간의 차이점을 규명하지 못했다는 점과 문제를 보는 觀角이 “교육” 이라는 측면에 국한되어 포괄적인 접근이 결여되어 있다는 점이다.

## II. 靑少年의 概念 및 靑少年期의 一般的 特性

### 1. 靑少年의 概念

오늘날 흔히 쓰이는 「靑少年」이란 용어는 유아기에서 노년기에 걸친 인간의 전 發達過程 중 하나의 特殊 한 시기에 해당되는 연령집단을 지칭하는 말로써, 그 시기의 기준설정이 보는 觀點에 따라 또는 학자에 다 라 다소간의 차이를 보이는 것은 生理的인 측면과 心理·社會的인 측면의 성숙이 일치하지 않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일반적으로 「靑少年」이라고 하면 우리나라에서는 주로 中·高等學校 학생의 연령층<sup>(10)</sup>을 말하고, 發達心 理學의 입장<sup>(11)</sup>에서 보면 靑年과 少年을 포함한 개념이라 말할 수 있기 때문에 오늘날 靑少年을 규정짓는데 가장 많이 사용되는 방법은 생활현상에 의한 구분이라고 하겠다. 이 방법은 연령의 사회적 分化로 나타난 연령계층이 靑少年<sup>(12)</sup>이라는 입장에서 靑少年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허록록(Hurlock, E.B.)<sup>(13)</sup> 은 13세에서 18세까지(남자: 14-18세, 여자 13-18세)를, 코노프카(Konopka, G.)<sup>(14)</sup>는 12세에서 22세까지 를 그리고 金 信一<sup>(15)</sup>은 12세에서 24세까지를 그 범위로 하고 있어 연령의 상·하한이 문제시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우리나라 法上의 규정<sup>(16)</sup>을 보더라도 아동복지법(제2조)에서는 18세 미만자를 兒童으로, 소년법(제2조)은 20세 미만자를 少年으로, 형법(제9조)은 14세 미만자를 형사未成年者로, 민법(제4조) 은 만 20세 미만자를 未成年으로, 근로기준법(제51조)은 18세 미만자를 年少者로, 소년원법(제6조)은 靑 少年의 교정교육 연령상한을 23세로 규정하고 있어 規定의 不一致와 연령한계의 혼선을 엿볼 수 있다.

그러나 레르너와 스파니어(Lerner, R.M. & Spanier, G.B.)<sup>(17)</sup>는 이러한 생활연령적인 개념이 일의적 임을 지적하고 있다. 왜냐하면 13세는 靑년(teen-ager)가 되고 21세는 어딘 개인이나 특정사회에서는 성인에 되는 것과 關連되는 나이라고 보기 때문이다. 또한 「靑少年」을 지칭하는 용어도 영어의 경우「teen-ager」, 「youngster」, 「younger generation」, 「youth」, 「adolescent」 등으로 다양하기 때문에 「靑少年」을

(10) 靑少年 집단은 크게 학생靑少年집단(재수생포함), 근로靑少年집단, 사회적靑少年집단으로 나눌 수 있다.

(11) S. Freud의 성적발달이론에 의하면 생식기(genital stage), J. Piaget의 인지발달이론에 의하면 형식적 조작기(formal operational stage), 그리고 L. Kohlberg의 도덕성발달이론에 의하면 인습적 도덕성(conventional morality) 이후의 시기라고 볼 수 있다.

(12) 趙 權, 「靑少年問題와 老人問題」, 서울: 正音社, 1984, 40면.

(13) E.B. Hurlock, 「Developmental Psychology」, 4th. ed., New Delhi: Tata McGraw-Hill Publishing Company, 1975, p.153.

(14) G. Konopka, Requirements for healthy development of adolescent youth, 「Adolescence」, 1973, 8(31), p.292, D. Rogers, 「The Psychology of Adolescence」, 3rd. ed., Englewood Cliffs, N.J.: Prentice-Hall, Inc., 1977, p.9. 에서 재인용.

(15) 金信一, “學校外 靑少年들의 實態와 教育的 必要”, 유네스코韓國委員會, 「學校外靑少年教育」, 1982, 2면.

(16) 吳世敬(編), 「大法典」, 서울: 法典出版社, 1984, 附3.

(17) R.M. Lerner, & G.B. Spanier op. cit., p.24.

명확히 정의한다는 것이 매우 힘든 작업임을 알 수 있다. 비록 미국의 경우가 되겠지만 하빌랜드와 스카보러프(Haviland, J. M. & Scarborough, H. S.)의 정의를 보면 다음과 같다.

“의학적으로, 청소년기는 성적인 성숙과 관련된 성장, 호르몬의 변화에서 시작되어 더이상 성장할 것이 없을 때 끝난다. 법적으로, 청소년기는 결혼을 포함하여 투표, 징병, 부채, 계약에 대한 성인의 책임감을 가정할 때 끝난다. 그런데 이러한 의무를 가정하는 연령은 지방이나 주에 따라 다양하며 14세에서 21세까지에 걸친다. 그리고 범죄행위에 대해 어린이가 책임을 지게 되는 연령도 지방이나 주에 따라 14세에서 18세까지 다양하다. 교육적으로, 청소년들은 중·고등학교 때로는 대학에서 시간을 보내게 된다. 심리학적으로 는 인지적, 신체적, 성격적, 사회적 변화가 일어나는 동안의 과도기다.”<sup>(18)</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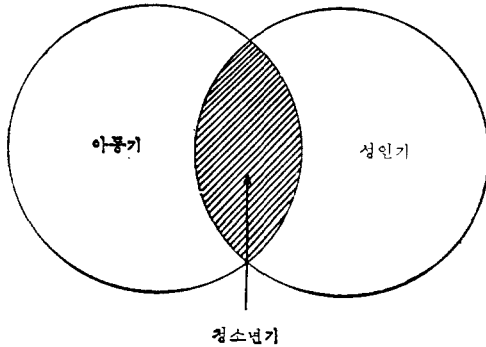
한편 하웨즈와 하웨즈(Hawes, G. R. & Hawes, L. S.)의 사전적 정의에 의하면 「靑少年」(Youth)이란 대략 13—21세 사이의 아동기와 성인기 사이의 젊은이들을 말할 때 사용되는 기술적인 용어(a descriptive term)<sup>(19)</sup>라고 말하고 있으며 鄭範謨<sup>(20)</sup>는 靑少年이란 사춘기와 청년기를 통칭하는 개념으로 보통 12, 13, 14세에서 시작하여 연령에 관계없이 결혼과 직업의 책임을 성취할 때까지 계속되는 것으로 보고 있다.

따라서 靑少年이란 12세에서 24세까지의 연령에 속하는 하나의 주변집단으로서 그 시기는 통상 思春期의 시작과 더불어 개시되어 넓게는 성인의 役割과 責任感을 성취할 때까지 계속되는 것으로 파악할 수 있으며, 性的인 성숙의 과정에 의해 청소년 시기를 간주하던 과거의 思考에서 벗어나 그 시기가 상당히 延長되고 있으며 나타마다의 特殊한 文化양식에 따라 달리 規定되고 있다고 하겠다.

## 2. 靑少年期의 一般의 特性

청소년기는 「폭풍우와 긴장의 시기」 또는 「광명과 암흑의 계절」, 「희망의 봄인 동시에 절망의 겨울」 등으로 표현되리만치 육체적, 정신적으로 불안정한 시기이며 어린이로부터 어른으로 발달되어가는 과정 중의 한 시기이기 때문에 이 分野를 연구하는 학자들은 청소년기가 「과도기」(period of transition)라는 점을 공통

〈圖 1〉



Source: Schiamberg, L. B. & Smith, K. U., *Human Development*, New York: Macmillan Publishing Co. Inc., 1958, p.412.

속(생식기관의 발달, 키모의 발생, 등경, 월경, 사정, 골반의 발달 등) 그리고 애배보호한 상태의 지위 등 청소년기에 맞게 되는 과도기적 特徵에 촛점을 두고 있는 말들로서, 이는 生物·生理的 차원과 社會·文化

적으로 지적하고 있다. 〈圖-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쉬얼베르그와 스미드(Schiamberg, L. B. & Smith, K. U.)는 청소년기를 兒童期와 成人期 사이의 無人島라는 개념으로 파악하고 있으며, 레르너와 스파니어(Lerner, R. M. & Spanier, G. B.)는 아이들을 대표하는 變化와 성인을 대표하는 變化를 모두 소유하고 있다는 점에서 아동기와 성인기 사이를 잇는 하나의 架橋<sup>(21)</sup>라고 보고 있다. 또한 허얼록(Hurlock, E. B.)은 아동기와 성인기 사이의 간격을 매꾸는 適應의 시기<sup>(22)</sup>라고 기술하고 있고, 鄭範謨는 청소년기를 따뜻한 아동기라는 氣流과 찬랭한 성인기라는 氣流가 맞부딪치는 不連續線시대<sup>(23)</sup>로 비유하고 있다.

以上の 몇몇 비유적 표현은 급격한 신체적 성장(신장, 체중, 근육, 골격, 내분비선 등)과 성격 성

(18) J. M. Haviland, & H. S. Scarborough, 「Adolescent Development in Contemporary Society」, New York: D. Van Nostrand Company, 1981, p.6.

(19) G. R. Hawes, & L. S. Hawes, 「The Concise Dictionary of Education」, New York: Van Nostrand Reinhold Company, 1982, p.248.

(20) 鄭範謨, “國家發展과 靑少年”, 李星珍, 朴性洙, 李揆成(編), 「國家發展과 靑少年」, 서울: 培英社, 1979, 9頁.

(21) R. M. Lerner, & G. B. Spanier, op. cit., p.22.

(22) E. B. Hurlock, 「Adolescent Development」, New York: McGraw-Hill Book Company, Inc., 1955, pp.1~2.

(23) 鄭範謨, 「前掲論文」, 18頁.

的 차원으로 大別하여 설명할 수 있다. 청소년기에 접어들면 신체의 모든 부분이 成人의 형태와 크기에 접근해 가는 發達上的 분출(spurt)이 있게 되며, 思春期<sup>(24)</sup>라는 특수한 시기가 나타나 生殖器官의 발달이 현저해지면서 제2차 性徵이 성숙되어 간다. 또한 청소년은 어린이도 어른도 아닌 상태에 놓이게 됨으로써 사회에서 어른아이로써 취급받는 것을 끝내지만 완전한 성인인 地位나 役割이 부여되지 않는 갈등상태에 직면하게 된다. 李相周<sup>(25)</sup>는 이러한 성인역할의 支拂延期(moratorium)를 가져온 이유를 첫째, 농경사회에서 공업화사회의 經濟體制的 變化 둘째, 젊은이들의 결혼시기의 지연 셋째, 학교교육의 보편화와 형식교육기간의 연장 넷째, 젊은이들의 복지와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현대적 法律制度 등에서 찾고 있다. 또한 韓完相<sup>(26)</sup>은 이러한 역할갈등과 지위의 불안정성이 産業社會의 속성에서 비롯되고 있음을 밝히면서 오늘의 靑少年 世代를 「새로운 不安의 世代」로 칭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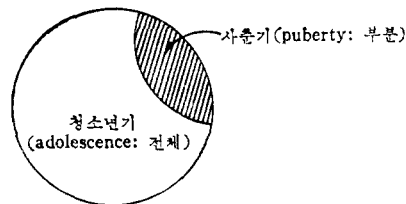
한편 청소년기는 自我를 확립하려는 몸부림이 그 어느 때 보다 강한 시기라고 볼 수 있다. 生活領域이 점차 확대되어 감에 따라 지금까지 가정이나 부모에게 依存하던 생활에서 벗어나 자기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人生을 살아가려는 獨立性이 강해지는 시기를 맞게 된다. 따라서 사회적 대인관계도 부모나 가족에게서 친구(동료집단이나 이성)나 이웃으로 확대되며 正體(identity)의 危機를 체험하게 된다. 즉 나는 누구인가? 내가 사는 목적은 무엇인가? 나는 장차 무엇을 할 것인가? 등등의 自記認識을 찾으려는 고민을 통해 자신의 內的 成長을 가져오는 계기를 마련하게 된다. 에릭슨(Erikson, E.H.)에 의하면 이 시기는 主觀的 측면인 개인적 정체감과 客觀的 측면인 심리, 사회적 정체감이 分化되고 이들의 재통합화와 구조화가 요구되는 시기<sup>(27)</sup>라고 보기 때문에 정체체의 위기는 청소년기에 겪는 가장 중요하고도 어려운 과정이라 말할 수 있다. 이러한 心理的 離乳 현상과 正體의 확립을 통해 自我가 발달해 가면서 청소년 특유의 반항성, 불안과 고민, 이상성 등이 부각되게 된다. 청소년기에 접어들면 기성세대나 기성사회에 대한 反抗心理가 표출되기 때문에 뵐러(Bühler)는 이 시기를 「제2 반항기」라고 부르기도 하였으며, 이 시기에는 과도기적 특성 때문에 심리적이고 정서적으로 可變性이 심하고 현실과 이상의 괴리에 대해 많은 고민을 하게 된다. 또한 이 시기에는 內面化의 경향이 강해져 가치관을 정립하는 것이 중요과제가 되고 장래의 生の 설계에 理想型을 추구하면서 그것을 성취하기 위한 강한 집념도 보이게 된다.

따라서 청소년기는 人生의 가장 매력적인 시기인 동시에 가장 괴로운 시기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며, 여러 측면에서 중대한 變化가 일어나는 시기이기 때문에 교육적으로도 매우 중요한 시기라고 보지 않을 수 없다.

### Ⅲ. 靑少年 非行의 動向과 特徵

일반적으로 청소년 비행이라 하면 少年의 비행행위를 成人의 범죄행위와 분리 취급하기 위하여 설정한 개념으로 權純永은 「청소년 비행이란 프괄적인 내용을 가진 것으로 즉 靑少年들의 모든 反社會的인 행동을 표시하는 개념」<sup>(28)</sup>이라 하였고, 金泳謨는 소년 비행을 「特定한 환경에서 特定한 심리적 욕구를 충족시키

(24) 사춘기는 통상적으로 청소년 전기에 해당되기 때문에 <圖-2>에 표시된 바와 같이 청소년기의 일부가 된다.



(25) 李相周, 「靑年의 社會的 位置와 意識構造」, 李星珍, 朴性洙, 李揆成(編), 「前掲書」, 55—57面.

(26) 韓完相, 「現代社會와 靑年文化」, 서울: 法文社, 1974, 15—16面.

(27) 靑少年對策委員會, 「靑少年白書」, 서울: 國務總理企劃調整室, 1981, 3面.

(28) 權純永外, 「韓國 靑少年非行의 解明」, 서울: 三星出版社, 1964, 2面.

〈表 1〉 연도별 범죄 현황

(단위 : 명)

| 연 도     | 전체범죄(A) | 소 년 범 죄 |          | 학 생 범 죄 |          |
|---------|---------|---------|----------|---------|----------|
|         |         | 인 원 (B) | 구성비(B/A) | 인 원 (C) | 구성비(C/B) |
| 1 9 7 9 | 683,118 | 79,240  | 11.6     | 20,563  | 26.0     |
| 1 9 8 0 | 752,161 | 87,962  | 11.7     | 26,615  | 30.3     |
| 1 9 8 1 | 768,571 | 88,936  | 11.6     | 32,383  | 36.4     |
| 1 9 8 2 | 835,553 | 106,301 | 12.7     | 42,414  | 39.9     |
| 1 9 8 3 | 932,788 | 103,088 | 11.1     | 43,338  | 42.0     |

註 : 전체범죄에는 군인범죄자도함. 자료 : 대검찰청.

〈表 2〉 소년 범죄의 유형별 동향

(단위 : 명)

| 구분 | 연도      |         |         |         |         |
|----|---------|---------|---------|---------|---------|
|    | 1 9 7 9 | 1 9 8 0 | 1 9 8 1 | 1 9 8 2 | 1 9 8 3 |
| 계  | 79,240  | 87,962  | 88,936  | 106,301 | 103,088 |
| 살인 | 79      | 88      | 86      | 93      | 103     |
| 강도 | 875     | 1,822   | 1,826   | 1,875   | 1,838   |
| 강간 | 2,093   | 2,278   | 3,152   | 3,642   | 3,366   |
| 강화 | 45      | 28      | 59      | 53      | 57      |
| 도행 | 38,704  | 40,446  | 36,590  | 46,829  | 43,497  |
| 결도 | 18,955  | 26,929  | 30,183  | 36,183  | 34,347  |
| 상해 | 1,303   | 1,278   | 1,203   | 1,611   | 1,444   |
| 공갈 | 196     | 290     | 271     | 301     | 297     |
| 협박 | 25      | 33      | 47      | 30      | 33      |
| 칭명 | 563     | 543     | 545     | 611     | 624     |
| 도박 | 197     | 193     | 159     | 157     | 113     |
| 강물 | 636     | 936     | 1,012   | 1,192   | 1,042   |
| 사기 | 689     | 667     | 788     | 949     | 1,154   |
| 기타 | 14,880  | 12,426  | 13,015  | 12,775  | 15,179  |

註 : 검찰통계는 경찰통계이외에 특별사법경찰관청의 송치사건포함. 자료 : 대검찰청.

〈表 3〉 소년 범죄의 동기별 상황

(단위 : 명)

| 연 도<br>(구성비) | 계                | 의 유 (刑態)         |                |                  |                | 사행심            | 원한·            |                | 유혹               | 가정             | 기타           |                  |
|--------------|------------------|------------------|----------------|------------------|----------------|----------------|----------------|----------------|------------------|----------------|--------------|------------------|
|              |                  | 소 기              | 생활비            | 유증비              | 학 영            |                | 분 노            | 취증·우연          |                  |                |              |                  |
| 1979<br>(%)  | 79,240<br>(100)  | 9,361<br>(11.8)  | 2,397<br>(3.0) | 5,288<br>(6.7)   | 1,676<br>(2.1) | 1,358<br>(1.7) | 3,374<br>(4.3) | 4,682<br>(5.9) | 10,950<br>(13.8) | 739<br>(1.0)   | 171<br>(0.2) | 48,995<br>(61.3) |
| 1980<br>(%)  | 87,867<br>(100)  | 12,327<br>(14.0) | 2,562<br>(2.9) | 7,767<br>(8.8)   | 1,998<br>(2.3) | 1,910<br>(2.2) | 3,618<br>(4.1) | 4,939<br>(5.6) | 10,293<br>(11.7) | 1,060<br>(1.2) | 207<br>(0.3) | 53,493<br>(60.9) |
| 1981<br>(%)  | 88,894<br>(100)  | 13,023<br>(14.7) | 2,638<br>(3.0) | 8,181<br>(9.2)   | 2,204<br>(2.5) | 2,016<br>(2.3) | 3,016<br>(3.3) | 4,420<br>(5.0) | 9,146<br>(10.3)  | 1,271<br>(1.4) | 157<br>(0.2) | 55,845<br>(62.8) |
| 1982<br>(%)  | 106,249<br>(100) | 17,071<br>(16.1) | 3,294<br>(3.1) | 11,153<br>(10.5) | 2,624<br>(2.5) | 2,742<br>(2.6) | 5,000<br>(4.7) | 6,843<br>(6.4) | 13,288<br>(12.5) | 1,814<br>(1.7) | 278<br>(0.3) | 59,213<br>(55.7) |
| 1983<br>(%)  | 103,025<br>(100) | 21,008<br>(20.4) | 3,320<br>(3.2) | 14,300<br>(13.9) | 3,388<br>(3.3) | 3,349<br>(3.3) | 5,268<br>(5.1) | 7,738<br>(7.5) | 23,893<br>(23.2) | 2,206<br>(2.1) | 246<br>(0.2) | 39,317<br>(38.2) |

註 : 군인범죄자 제외. 자료 : 대검찰청.

거나 욕구불만을 해소하려는 心理가 작용하여 나타나는 反社會的 무적용 행위<sup>(29)</sup>라고 定義하고 있다. 이러한 개념 설정하에서 중요하게 대두되는 것이 靑少年 人口다. 이는 靑少年 人口의 동태가 비행과 많은 연관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대략 10세에서 24세까지의 우리나라 靑少年 人口는 全體 人口에 대한 비율로 볼 때 1960년에 29.5%, 1970년에 31.8%, 그리고 1980년에는 34.0%<sup>(30)</sup>로 점차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어 이들에 대한 교육적 지도의 중요성이 더해가고 있다.

〈表 1〉에 제시된 바와 같이 최근 5년간의 소년 범죄의 양상은 '82년에 비율이 약간 상승하였다가 다시 줄어드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 반면, 학생 범죄는 매년 증가추세를 보여 '80년 과외 금지 조치가 내려진 이후 3년 사이에 무려 11.7%의 높은 증가율을 나타내고 있다. 特別 이러한 수치는 '82년의 통금 해제, 중·고등학생들의 교복 및 두발 자율화 시책과 상관<sup>(31)</sup>이 있다고 볼 수 있다. 다음으로 소년 범죄의 유형별 동향 〈表 2 참조〉을 보면 '83年度에 粗暴犯(폭행, 상해, 공간, 협박 등)이 43.9%, 財産犯(절도, 사기, 횡령, 장물 등)이 36.1%, 強力犯(살인, 강도, 강간, 방화 등)이 5.2%로 나타나, 5年前에 비해 粗暴犯(50.8%)은 크게 줄어든 대신 財産犯(26.3%)과 強力犯(3.9%)이 상대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소년범죄의 범행동기 〈表 3 참조〉는 利慾이 '82년까지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으나 '83년에는 偶然(23.2%)이 利慾(20.4%)을 앞서고 있으며, 利慾 중에서는 유흥비 마련이 가장 높은 비율(13.9%)로 계속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다음으로 소년 범죄자의 연령별 구성비〈表 4 참조〉를 보면, 최근 5年間 14세 미만과 18—19세 층의 범죄율은 줄어드는 추세에 있으나 14—17세 연령층은 완만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特別 중학교를 졸업하고 고등학교에 입학하는 시기(16—17세)가 가장 범죄율이 높다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한편 소년 범죄 중 학생 범죄〈表 5 참조〉는 '83년에 '79년에 비해 무려 107.6%의 증가를 보였으며, 유형별로는 절도사범이 12.5% 증가, 흉악범은 0.4% 증가, 그리고 폭력사범은 15.2%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

〈表 4〉 소년 범죄자의 연령별 상황

(단위 : 명)

| 연 도     | 소년범죄자   |     | 14 세 미 만 |     | 14 — 15 세 |      | 16 — 17 세 |      | 18 — 19 세 |      |
|---------|---------|-----|----------|-----|-----------|------|-----------|------|-----------|------|
|         | 인 원     | %   | 인 원      | %   | 인 원       | %    | 인 원       | %    | 인 원       | %    |
| 1 9 7 9 | 79,240  | 100 | 2,103    | 2.7 | 8,426     | 10.6 | 22,864    | 28.9 | 45,847    | 57.8 |
| 1 9 8 0 | 87,962  | 100 | 2,643    | 3.0 | 12,322    | 14.0 | 27,083    | 30.8 | 45,914    | 52.0 |
| 1 9 8 1 | 88,936  | 100 | 3,298    | 3.7 | 14,197    | 16.0 | 29,590    | 33.3 | 41,851    | 47.0 |
| 1 9 8 2 | 106,301 | 100 | 3,787    | 3.6 | 17,699    | 16.7 | 36,504    | 34.3 | 48,311    | 45.4 |
| 1 9 8 3 | 103,088 | 100 | 3,061    | 3.0 | 18,066    | 17.5 | 35,135    | 34.1 | 46,826    | 45.4 |

자료 : 대검찰청

〈表 5〉 학생 범죄의 유형별 추세

(단위 : 명)

| 연 도     | 계      |     | 폭 력 사 범 |      | 절 도 사 범 |      | 흉 악 사 범 |     | 기 타   |      |
|---------|--------|-----|---------|------|---------|------|---------|-----|-------|------|
|         | 인 원    | %   | 인 원     | %    | 인 원     | %    | 인 원     | %   | 인 원   | %    |
| 1 9 7 9 | 20,563 | 100 | 12,609  | 61.3 | 4,638   | 22.6 | 154     | 0.7 | 3,162 | 15.4 |
| 1 9 8 0 | 26,615 | 100 | 13,954  | 52.4 | 8,563   | 32.2 | 365     | 1.4 | 3,733 | 14.0 |
| 1 9 8 1 | 32,383 | 100 | 15,201  | 46.9 | 11,134  | 34.4 | 372     | 1.1 | 5,676 | 17.6 |
| 1 9 8 2 | 42,414 | 100 | 21,169  | 49.9 | 14,442  | 34.1 | 528     | 1.2 | 6,275 | 14.8 |
| 1 9 8 3 | 43,338 | 100 | 19,959  | 46.1 | 15,213  | 35.1 | 487     | 1.1 | 7,679 | 17.7 |

자료 : 대검찰청

(29) 金泳謨, 「靑少年의 欲求 및 指導指標의 開發에 관한 研究」, 서울 : 韓國靑少年聯盟附設 韓國靑少年研究所, 1985, 7면.

(30) 경제기획원, 「한국통계연감」, 서울 : 경제기획원 조사통계국, 1984, 40—41면.

(31) 1984年度 「靑소년백서」에 의하면 '82년에는 '81년에 비해 무려 24%가 대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있다.

〈表 6〉 학생 범죄의 동기별 상황

(단위:명)

| 연 도<br>(구성비) | 계               | 이 율 (利 慾)       |              |                 |                |                | 사행심            | 원한분노         | 가정불화           | 유 욕              | 우 연              | 기 타 |
|--------------|-----------------|-----------------|--------------|-----------------|----------------|----------------|----------------|--------------|----------------|------------------|------------------|-----|
|              |                 | 소 계             | 생활비          | 유흥비             | 취 사치심          | 영              |                |              |                |                  |                  |     |
| 1979<br>(%)  | 20,563<br>(100) | 1,796<br>(8.7)  | 192<br>(0.9) | 1,093<br>(5.3)  | 511<br>(2.5)   | 461<br>(2.2)   | 1,106<br>(5.4) | 53<br>(0.3)  | 269<br>(1.3)   | 2,927<br>(14.2)  | 13,951<br>(67.9) |     |
| 1980<br>(%)  | 26,615<br>(100) | 2,971<br>(11.2) | 362<br>(1.4) | 1,892<br>(7.1)  | 717<br>(2.7)   | 682<br>(2.6)   | 1,364<br>(5.1) | 81<br>(0.3)  | 463<br>(1.7)   | 3,378<br>(12.7)  | 17,676<br>(66.4) |     |
| 1981<br>(%)  | 32,383<br>(100) | 3,780<br>(11.7) | 447<br>(1.4) | 2,318<br>(7.2)  | 1,015<br>(3.1) | 772<br>(2.4)   | 1,228<br>(3.8) | 56<br>(0.2)  | 612<br>(1.9)   | 3,696<br>(11.4)  | 22,239<br>(68.7) |     |
| 1982<br>(%)  | 42,414<br>(100) | 5,641<br>(13.3) | 756<br>(1.8) | 3,605<br>(8.5)  | 1,280<br>(3.0) | 1,408<br>(3.3) | 2,307<br>(5.4) | 96<br>(0.2)  | 929<br>(2.2)   | 5,833<br>(13.8)  | 26,200<br>(61.8) |     |
| 1983<br>(%)  | 43,338<br>(100) | 8,094<br>(18.7) | 845<br>(1.9) | 5,415<br>(12.5) | 1,834<br>(4.2) | 1,653<br>(3.8) | 2,436<br>(5.6) | 105<br>(0.2) | 1,081<br>(2.5) | 10,869<br>(25.1) | 19,100<br>(44.1) |     |

자료:대검찰청

고 동기별 상황〈表 6 참조〉은 偶然이 5年間 10.9% 증가하여 증가율이 가장 높고 다음이 利慾(10.0% 증가)으로 나타나 있다. 학생 범죄의 경우에도 소년 범죄와 마찬가지로 유흥비를 마련하기 위한 범행이 매우 높다고 하겠다.

〈表 7〉 청소년의 비행 경험률(%)

|                       | 비 행 의 유 형         | 민평균외 2인연구*<br>(학 생 집 단) | 이혼구외 2인연구**<br>(일반청소년집단) |
|-----------------------|-------------------|-------------------------|--------------------------|
| 가<br>비<br>운<br>비<br>행 | 1. 나쁜 친구와 어울리기    | 8.8                     | 35.1                     |
|                       | 2. 교포 빼놓고 다니기     | 16.3                    | 22.2                     |
|                       | 3. 키스나 포옹하기       | 15.4                    | 25.9                     |
|                       | 4. 할일없이 거리 돌아다님   | 36.0                    | 55.2                     |
|                       | 5. 등록금을 씌         | 13.3                    | 10.1                     |
|                       | 6. 미성년자 관람불가 영화감상 | 37.0                    | 49.0                     |
|                       | 7. 밤늦게 외출         | 69.6                    | 37.4                     |
|                       | 8. 부모님 말 안듣기      | 54.2                    | 55.7                     |
|                       | 9. 사복입기           | 59.1                    | 82.1                     |
|                       | 10. 가발사용          | 4.8                     | 6.6                      |
|                       | 11. 머리 기르기        | 43.1                    | 44.6                     |
|                       | 12. 청소 안하기        | 36.3                    | 48.2                     |
| 무<br>거<br>운<br>비<br>행 | 1. 술 먹 기          | 32.0                    | 39.8                     |
|                       | 2. 성관계를 가짐        | 12.1                    | 21.9                     |
|                       | 3. 담배 피우기         | 23.5                    | 27.8                     |
|                       | 4. 흉기 소지          | 7.4                     | 13.2                     |
|                       | 5. 친구와 패싸움        | 20.3                    | 17.2                     |
|                       | 6. 경찰서에 불려간 경험    | 3.9                     | 19.7                     |
|                       | 7. 무기및 유기정학을 당함   | 6.0                     | 9.5                      |
|                       | 8. 유흥업소 출입        | 21.8                    | 27.6                     |
|                       | 9. 남녀 동반 캠핑       | 12.6                    | 22.6                     |

자료:새교육, 통권 제301호, (1979. 11)

\*閔秉根, 崔祥鎭, 李吉弘, 「오늘의 靑少年: 韓國 靑少年의 意識構造와 行動樣式」, 中央大學校 永信아카데미 硏究院 韓國 靑少年問題硏究所, 1978.

\*\*李勳求, 張聖洙, 權聖雅, 「靑少年非行에 關한 考察」, 硏究노트, 제8권, 제4호, 1979.



끝으로 閔秉根님과 李勳求님이 조사연구한 청소년의 비행 경험률(表 7 참조)을 보면, 두 연구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많은 청소년들이 가벼운 비행에서 부터 우려할만한 비행에 이르기까지 관계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두 연구가 공히 교복 및 두발 자율화 이전에 이루어진 관계로 사복입기, 가발사용, 머리기르기 등의 輕비행이 이제는 비행이라고 보기가 어렵게된 점을 감안하더라도 할일없이 거리를 배회한다거나 밤늦게 외출하는 청소년의 비율이 높다는 점은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 또한 술먹기, 담배피우기, 유흥업소출입 등의 重비행의 비율이 두 연구에서 모두 높게 나타나 있는 점에 유의해야 하겠다.

이상의 통계자료의 분석을 종합적으로 고찰해 보면, 최근의 청소년 범죄의 양상은 強力犯과 財産犯이 상당히 증가하고 있는데 이는 경제발전에 따른 국민소득의 증대로 생활이 점차 안정되고 대가족제에서 핵가족제로의 전환, 가치관의 혼란과 변화 그리고 물질주의적 생활태도 등으로 인한 윤리관념의 결여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저연령화, 유흥형화, 불투명한 동기에 의한 범죄가 증가하고 있으며, 매년 학생 범죄가 전체 청소년 범죄 증가율을 앞지르고 있음을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 그 동기가 대부분 우발적이고 충동적인 면을 보여주고 있어 더욱 큰 우려를 낳게 한다. 이에 대한 원인은 다각적으로 분석할 수 있겠지만 청소년 자신들의 意志力的 결핍과 道德觀의 미확립, 가정의 統制力 상실, 入試위주의 학교교육과 과잉 경쟁체제, 기성세대의 物質본위의 사고, 그리고 사치와 방탕의 享樂的 사회환경 등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결국 청소년 비행이나 범죄의 문제는 그 사회의 치부를 정직하게 표현해 주는 거울과 같은 것이기에 문제의 심각성에 대한 근본적 재검토가 있어야 할 것이다.

#### Ⅳ. 問題의 診斷과 教育的 課題

##### 1. 家庭教育의 側面

가정은 혈연관계로 맺어진 가족들이 함께 살아가는 삶의 터전으로서 인간교육의 源泉인 동시에 인간이 最初로 경험하는 教育環境이다. 이곳에서 성숙한 人格體가 되기 위한 基礎가 형성되기 때문에 그 가정이 健全할 때 건강하고 튼튼한 기초가 다져지고 그 가정이 病들어 있을 때 바로 그곳에서 그릇된 성장의 틀과 비행의 싹이 움트게 된다. 이런 점에서 「가정은 사람이 경험하는 최초의 기관이며 최대의 영향력을 주는 사회」<sup>(32)</sup>라고 하여 인간에게 가장 重要한 교육기관임을 말하고 있다. 로크(Locke, J.)도 이런 측면을 강조하여 인간은 白紙(Tabula Rasa)와 같은 존재로 태어나 댄먼져 주어지는 經驗들이 마치 白紙에 떨어진 물감 처럼 그의 一生을 두고 지울수 없는 흔적을 남긴다고 말하기도 하였다. 이처럼 인간의 初期의 경험들이 가정을 통해 이루어지고 그 경험이 성장과정중에 지속되기 때문에 어린이로부터 어른으로의 人格 形成단계에 있는 청소년 시기에는 가정을 통한 교육의 적극적 기능수행이 매우 중요하다고 하겠다.

그러나 우리의 가정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교육적 측면에서 우려되는 문제점이 많이 발견되고 있다. 特別히 청소년의 비행과 관련된 가정적 要因<sup>(33)</sup>은 매우 다양하고 복잡적이지만 가정의 불건전한 환경과 분위기에서 비롯되는 비율이 상당히 높음을 알 수 있다. 이제 주요 문제점을 지적해 보면 첫째, 아버지의 권위퇴색과 어머니의 권위강화에 따른 문제다. 가정교육은 부모의 共同的인 작업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인데 오늘날은 父의 교육적 권위와 기능이 퇴색하고 대신 母의 교육적 역할이 지나치게 강조되어가는 추세에 있다는 점이 다. 전통적으로 내려오던 「嚴父慈母」의 개념이 「慈父嚴母」로 탈바꿈되어가는 듯한 느낌이며, 일에 쫓겨 가정에 신경을 쓸 시간적 여유가 없는 오늘의 수많은 아버지들을 지칭하여 “시간제 아버지”, “손님이나 아저씨로서의 아버지”, “회회적인 아버지”<sup>(34)</sup>등으로 表現되는 현실이고 보면 가정교육의 母性化 내지는 女性化

(32) 徐明原, 「教育原理」, 서울: 翁文社, 1970, 5面.

(33) 이 훈구와 송인섭의 연구에서 설정한 가정변인은 ① 부모의 자녀에 대한 억압 ② 부모의 자녀에 대한 무관심 ③ 가족원간의 유대감부족 ④ 부부간의 불화 ⑤ 부모의 자녀에 대한 편애 ⑥ 자녀의 부모와의 동일시 실패 등이고, 이것들의 연구결과에 따른 부적응요인은 ① 자녀에 대한 무관심 ② 지나친 기대와 요구 ③ 지나치게 엄한 환경 ④ 가정불화 ⑤ 부모의 자녀에 대한 과잉보호 등으로 나타나 있다.

李勳求, 宋仁燮, 「靑少年非行的 社會心理學的 側面」, 서울: 韓國行動科學研究所, 1979, 9-13面.

李起龍, 「靑少年問題의 實證的 考察」, 「牧園大學論文集」(第4輯), 1981, 324面, 참조.

(34) 權彝鍾, 「社會教育과 靑少年指導」, 서울: 培英社, 1984, 37-38面.

의 경향이 우려된다고 하겠다. 이러한 현상에 대해 朝鮮日報 社説은 다음과 같이 적고 있다.

“사람의 말에는 많은 對立된 원리가 작용하고 있으나 그중에서도 父性과 母性의 원리대립은 특히 소년들에게 있어 중요한 대립이 될 것이다. 물론 두 원리가 균형을 잡을수록 좋다는 것은 부말할 나위가 없었는데 우리나라는 이 세상에서 드물게 모성원리에 치우친 母性文化의 나라라는 것이 청소년 문제를 보다 심각하게 하고 있다. ………아이들은 철들고부터 응석 하나만으로 모든 것이 해결되는 그런 의존반응의 母性原理社會에서 성장하기에 자신의 思考나 行勳이나 하는 일에 전혀 責任을 질 줄 모르는 유약한 인간이 되고 만다.”<sup>(35)</sup>

둘째, 가족제도의 變化에 따른 가정교육기능의 약화 문제다. 전통적인 우리의 대가족제가 부부중심의 핵가족제로 변모하면서 어른과 아이사이의 자연스런 계이루어지던 價値規範이나 役割模型의 전수가 장애를 받게 되었고, 부부간의 갈등이 곧바로 가정의 파탄으로 이어지는 문제점을 안게 되었다. 이렇게 된에 따라 가정은 가정으로서의 충분한 教育機能을 수행하지 못하여 청소년에 대한 가정교육 또는 훈육이 적절하게 행해지지 못하고 있는 가정이 많게<sup>(36)</sup> 되었다.

셋째, 여성의 사회진출증대에 따른 문제다. 사회가 發展하면서 女性專門人力을 많이 필요로 하게되고 出産이나 家事의 부담이 과거사회보다 상대적으로 줄어들고 동시에 自我實現의 欲求가 강해지면서 기혼여성들의 사회진출이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렇게 많은 여성들이 맞벌이를 위해 직장으로 진출함에 따라 소위 열쇠아이(key boy)<sup>(37)</sup>들이 증가하고 있으며 부모의 감독이나 지도소홀에서 비롯되는 청소년들의 탈선이 점차 문제화되어 가고 있다.

네째, 가족구성원간의 心理的 유대의 감소와 대과단절의 문제다. 찬 경규 등의 연구에 의하면, 우리나라 청소년들은 10% 내외만이 부모나 형제를 대화의 상대자로 생각<sup>(38)</sup>하고 있으며, 이 기쁨이 조사한 문제해결의 상담역에서도 中學生의 경우 부모(37%), 친구(17%)의 순이나 高等學生의 경우에는 친구(32%), 부모(18%)의 순으로<sup>(39)</sup> 역전되어 연령이 높아질에 따라 부모와의 대화를 기피하여 부모-자식간에 의사소통의 장애가 심함을 알 수 있다. 그밖에도 부모와의 의견차이, 부모에 대한 반감, 어른과 청소년들이 서로 상대방을 보는 상반된 인식<sup>(40)</sup> 등에서 이 점은 더욱 명백해진다.

다섯째, 부모의 補償心理와 지나친 기대의 문제다. 자녀를 자신들의 分身으로 여겨 자신들이 성취하지 못한 욕구를 자녀가 이루어 주기를 바라는 등 자녀의 교육을 出世의 수단으로 여기는 비틀어진 교육관과 자녀의 적성이나 능력을 모르는 채 부모의 현시적 욕망과 직면을 위한 자녀의 두뇌의 점차 일반화되어 간다는 사실이다. 학생 청소년의 61.2%가 父母의 지나친 期待에 중압감을 느끼고 있다는 金鍾國 등의 연구<sup>(41)</sup>가 이를 뒷받침한다.

이러한 문제점의 교육적 측면에서의 개선책은 부권을 강화하여 아버지의 실추된 권위를 회복하고 자녀들과 같이 많은 대화의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각 직장의 경시퇴근제가 도입됐으면 하는 바램이다. 또한 부모의 전전관 생활태도, 올바른 교육관의 정립 등이 요청되며 자녀와의 밀도있는 사랑과 애정의 교환, 지나친 과보호나 무관심의 탈피, 부모의言行과 訓育의 일치 등이 가정교육을 통해 具現되어야 할 과제라고 하겠다.

## 2. 學校教育의 側面

학교는 教育의 機能을 가장 체계적, 의도적, 조직적으로 實踐에 옮길 수 있는 기관<sup>(42)</sup>이기 때문에 바람직한 방향으로의 행동변화는 學校教育을 통해 가장 具體化될 수 있다. 특히 우리 청소년 연령층의 절대다수가 각급학교 학생이라는 점에서도 학교를 통한 교육적 意義는 매우 크다고 하겠다.

(35) 「朝鮮日報」, 1981年 3月 24日字, 2面.

(36) 金慶淑, 「韓國의 青少年非行과 二善導方案에 관한 研究」, (未刊行碩士學位論文, 梨花女子大學校 教育大學院, 1973), 25面.

(37) 權錫鎭, 「前揭書」, 126面.

(38) 裴鏡翁外, 「韓國 青少年의 生活과 産業社會의 社會科教育」, 서울: 韓國精神文化研究社, 1982, 339面.

(39) 李起龍, 「前揭論文」, 330面.

(40) \* 어른의 눈에 비친 소년의 청소년들의 모습: 너러이 없다, 단순종적, 이기적, 어른의 무기, 자기중심적, 이치감인 변·의지력 같은 면이 부족, 세상을 보는 눈이 잘못되어 있다 등. \* 청소년들이 보는 어른의 모습: 너무 현실적, 권위주의적, 말과 행동의 불일치, 일류대학이나 대학의 강요, 부조건 어렵다고 생각, 차별관용이다. 이성교제 등의 금지 등. 大韓 YMCA聯盟, 「한국적 젊은이 그들은 누구인가」, 서울: 大韓 YMCA聯盟, 1979, 14-20쪽 참조.

(41) 金鍾國外, 「青少年의 意識에 관한 調査研究報告書—世界青少年과 比較하여—」, 서울: 青少年會館, 1976, 15-16面.

(42) 黃運淵, “학교교육과 국민정서의 변화”, 「教育評論」(1980, 8), 127面.

중등교육의 普通化와 대학문호의 開放 등으로 그 어느 때 보다 학교교육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는 오늘 의 청소년들은 교육의 肯定的 효과에 못지 않는 逆機能的 와중에서 많은 갈등을 느끼고 있다. 교육을 받음 으로서 얼마나 참된 人間이 되느냐 보다는, 교육이 출세의 도구나 수단으로 전락되어가는 현실속에서 학교 교육의 價値나 座標가 표류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즉 청소년 자신들은 학교를 학문을 탐구 하고 진리를 탐구하 는 곳(40.7%)이나 교양을 넓혀고 인격을 도야하는 곳(39.8%)<sup>(43)</sup>으로 인식하고 있으나 현실은 그런 기대와는 다른 방향으로 전개되어 간다는 데 있다. 이런 점에서 청소년 탈선의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오늘의 학교교육의 문제점을 지적해 보면, 첫째, 지나친 진학위주, 입시위주의 교육이다. 국민학교에서 고등학교까지 의 교육이 실하게 말하면 대학진학을 위한 준비교육이라 할 수 있으며, 대학진학여부가 人間性 자체를 평가 하고 등급지우는 모순을 빚고 있다는 점이다. 이런 사회풍토로 인해 적성과 능력은 뒷전으로 밀려나고 실업 계 고등학교를 졸업한 학생들조차도 학구열이 아닌 요인에 의해 대학진학을 원하는 비율이 증대되어간다는 점이다. 최근의 조사연구 결과를 보더라도 학교청소년의 50% 이상이 「공부, 입시, 성적」에 대한 것을 강조<sup>(44)</sup>하고 있고, 공부와 진학문제로 고민하고 있는 학생(중학생의 41.3%, 고등학생의 59.9%)<sup>(45)</sup>이 상당수에 달하고 있어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특히 입시위주교육의 實相은 다음과 같은 한 학생의 고백 속에 분명히 드러나고 있다.

“우리가 받고 있는 교육에 대해 불만이 많다. 우리를 너무나 입시공부의 틀속에 몰아 넣는 것 같다. 학년을 올라가면 갈수록 더욱 그렇다. 대를들어 율리공부를 하면서도 “이건 작년도 예미고사 문제고 저건 S대 본고사 문제다”는 식으로 공부한다. 적어도 율리과목 만이라도 그렇게 배우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독서나 취미생활 등 항상 하고 싶은 것은 많은데 공부에 쫓기다 보면 업무도 내지 못하는 우리들이 한심스럽다.”<sup>(46)</sup>

둘째, 교사에 대한 不信과 교사 권위의 저하 문제다. 학교교육의 成敗는 교사-학생간의 원활한 관계에 있다고 볼 때 학생을 지도하는 立場에 있는 교사의 위치는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오늘날 學校教育現場에서 나타나고 있는 학생들의 교사에 대한 태도는 학교교육의 危機를 실감케한다는 점이다. 安珍植의 연구<sup>(47)</sup>에 의하면, 학생들이 자신의 고민을 의논하는 대상 중 학교교사가 차지하는 비율이 가장 낮게(2.2%) 나타나 있으며, 金泳濤의 연구<sup>(48)</sup>에 의하면, 청소년들의 학교비행 중 교사에 대한 反抗 경험의 비율(10.6%)이 답안지 훔쳐보기(27.6%) 다음으로 높게 나타나 이를 잘 대변해 주고 있다. 이런 점을 놓고 볼 때 학생들은 교사를 단지 知識의 전달자로만 생각하고 있으며, 교사에 대한 不信이 학교교육에 대한 不信으로 연장되어 학교 부적응학생이 증가될 소지가 많다고 하겠다. 더우기 教科書의 論理와 現實的 社會現象의 不一致 내지 乖離는 교사의 권위를 저하시키는 결정적 要因이 되고 있다. 교사의 말이 학생들에게 먹혀들지 않는 상황이라면 학교교육에 거는 期待는 그만큼 반감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셋째, 과잉경쟁체제와 생활지도상의 문제다. 오늘날 學校가 계층이동을 가장 확실하게 보증하는 자격증 발급소<sup>(49)</sup>로 탈바꿈되면서 대학입학을 둘러싼 지나친 競爭體制는 청소년들을 “점수따는 기계”로 전락시키고 있고, 創意性이나 潛在力을 개발시켜 주는 교육이 되기 보다는 주입식 暗記教育으로 일관해 思考體系의 단순화를 낳고 있다는 점이다. 또한 일련의 自律化 교육시책은 教科指導에 못지않게 生活指導의 강화를 요청하고 있지만, 우리의 교육현장의 생활지도가 아직도 학생의 이해나 사전예방 보다는 설득과 사후처벌 위주로 운영되고 있다는 점이 큰 문제다. 여기에 다분히 사무적인 교사들의 상담태도, 교사와 학생간의 인간적인 유대의 결여 등이 부가되어 학교 생활지도나 상담활동의 능률이 오르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學校教育의 課題는 우선 교육의 非人間的인 요소가 제거되어 참다운 人間化가 실현되어야 하겠고, 교사를 신뢰할 수 있고 그 권위가 존중될 수 있는 교육풍토 개선작업이 이루어져

(43) 靑少年對策委員會, 「靑少年白書」, 서울: 文敎部, 1984, 90面.

(44) 大韓 YMCA 聯盟, 「前揭書」, 23面.

(45) 靑少年對策委員會, 「前揭書」, 98面.

(46) 大韓 YMCA 聯盟, 「前揭書」, 29面.

(47) 安珍植, 「靑少年的 家庭環境과 價値觀과의 關係에 관한 一研究」, (未刊行碩士學位論文, 梨花女子大學校 教育大學院, 1970), 105面.

(48) 金泳濤, 「前揭書」, 59面.

(49) 李相燾, “既成世代와 靑少年”, 「現代社會와 靑少年」, 서울: 峨山社會福祉事業財團, 1983, 42面.

야 하겠으며, 과잉경쟁체제를 완화시키기 위한 학력간 임금격차의 해소 등 사회적 모순의 시정이 하루빨리 이루어져야 하겠다. 그리고 상담전문교사의 확보와 교사에 대한 학생생활지도비의 지급 등을 위한 정부 차원의 재정적 지원체제가 마련되어야 하겠다.

### 3. 社會教育의 側面

사회교육이란 개념은 그 대상과 내용이 광범위한 뿐더러 「교육」하면 으레 「학교」를 聯想하기 쉬운 우리 사회의 일반화된 의식구조 때문에 아직도 가정교육이나 학교교육에 비해 生疎한 느낌을 주고 있다. 陳元重<sup>(50)</sup>과 黃宗建<sup>(51)</sup>이 기술하고 있는 사회교육의 개념을 보면,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사회교육이 사회교육의 중요한 한 영역이 되고 있다. 학생 청소년의 경우에는 학교교육이 지나치게 상급학교 입학위주의 敎育課程으로 운영되는데 따른 認知的 경험과 情意的 경험의 불균형을 해소시켜야 할 필요성이 높고, 기존의 학교교육을 통해 얻는 知識들이 그들의 다양한 知識를 충족시켜주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 사회교육적 의의를 찾을 수 있다. 그리고 미진한 청소년이나 근로 청소년들의 경우에는 그들이 사정에 의해 중단해야 했던 학습의 기회를 부여하고 새로운 知識과 技術 습득에 대한 欲求를 충족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역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 특히 오늘날과 같이 科學技術의 날로 진보하고 知識이나 情報의 量이 폭발적으로 증대해 가는 시대에는 다양한 사회교육 프로그램의 제공을 통해 가정이나 학교교육의 결함을 보완할 수도 있다는 점에서 그 필요성이 매우 높다고 하겠다. 이와 같은 청소년 사회교육에 대해 張眞鎬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청소년을 위한 사회교육은 주로 진학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각종 청소년단체를 중심으로 행해지고 있는 교육과 종교단체에서 행해지고 있는 교육, 그리고 농촌봉사활동 등이다. 미진한 청소년을 위해서는 준학교 형태의 교육, 기술 및 직업교육, 영농교육, 그의 기관들에 의해 실시되고 있는 교육을 들 수 있다. 또한 이들 청소년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각종 문화시설과 매스컴도 사회교육 기능의 역할을 하게 되므로 다양한 프로그램과 대책을 갖추어야 한다.”<sup>(52)</sup>

이러한 청소년 사회교육적 측면에서 몇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면 첫째, 청소년을 위한 여가선용시설의 문제다. 우리나라 中·高生들은 학교에서 보내는 시간이 하루 평균 10시간이 넘는 반면<sup>(53)</sup>, 그들이 사회의 눈총을 받지 않고 건전하게 쉴 수 있는 위락시설은 턱없이 부족하다는 점이다. 학교통학로까지 걸투한 각종 유흥업소(전자오락실, 당구장, 저속만화대여소 등), 미성년자 출입금지 술집, 다방, 극장 등의 간판만이 요란할 뿐 청소년이 마음놓고 드나들 수 있는 장소가 거의 없다는 것이 문제다. 그나마 청소년단체가 제공하는 시설이 있기는 하나 경제적 부담 등으로 그 활용도는 매우 낮은 편이다. 홍 남선이 6개 청소년단체에서 활동하고 있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도 청소년단체들의 사회교육적 기능의 수행이 만족스럽다는 의견은 응답자의 19.5%에 불과<sup>(54)</sup>한 것으로 나타나 이를 뒷받침해 준다.

둘째, 근로청소년들을 위한 야간 특별학급이나 산업체부설학교의 철회문제다. 진학이나 학업의 機會를 놓친 이들에게 교육적 惠澤을 준다는 것은 매우 의의있는 일로서, 한때는 이러한 학급이나 학교가 기업체의 지원하에 매우 活氣를 띤 적이 있었다. 그러나 경영난이 深化되면서 이에 대한 財政的 지원이 줄어들게 되고 사회일반의 觀心이 퇴색하면서 그 기능이 원활치 못하게 되었다는 점이다. 근로 청소년들은 학생 청소년들과는 달리 무시, 차별, 불평등에서 오는 불만, 직장 상사와의 관계에서 생기는 불만, 대우나 빈곤에서 오는 불만<sup>(55)</sup>이 主宗을 이루는 만큼 그들의 불만을 해소하고 노사간의 원만한 관계를 유지한다는 측면에서 고려가 있어야 하겠다.

셋째, 私設강습소의 교육적 책임의 문제다. 현재 청소년들이 利用하고 있는 사설강습소로는 피아노, 주산, 태권도, 타자, 미술, 서예, 외국어학원 등에서부터 재수생을 위한 입학학원에 이르기까지 매우 다양한

(50) 韓國敎育學會, 「社會敎育의 諸問題」, 서울: 能力開發, 1974, 19面 참조.

(51) 黃宗建, 「社會敎育」, 서울: 現代敎育叢書出版社, 1962, 27面 참조.

(52) 張眞鎬, “青少年敎育의 意味”, 韓國敎育學會, 「前掲書」, 50面.

(53) 鄭詒熙, “青少年敎育과 餘暇善用”, 「새교육」, 통권 제319호(1981. 5) 83面.

(54) 洪南선, 「청소년단체의 사회교육적 기능에 관한 연구」, (未刊行碩士學位論文, 梨花女子大學校 敎育大學院, 1977), 121面.

(55) 大韓 YMCA 聯盟, 「前掲書」, 42面.

다. 사회가 發達하고 새로운 知識, 技術, 藝能 기타의 학습활동에 대한 欲求가 증대하면서 사설강습소의 教育적 비중이 높아지고 있으나 이 업소들이 지나치게 營利에만 눈이 어두워 教育적 책임을 소홀히하고 있다는 점이다.

비핵, 대중매체에 의한 否定的 影響의 문제다. 신문, 잡지, 라디오, 텔레비전 등의 대중전달매체를 통한 상업적이고 퇴폐적인 기사나 오락 등이 청소년의 人格形成 面이나 行動樣式 面에 역기능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사소한 것처럼 보이는 T.V.광고, 저질 방송언어나 저질 대중가요 등이 청소년에게 미치는 影響은 深大하기 때문에 이에대한 재검토가 있어야 하겠다.

이상의 문제점에 대처키 위한 社會教育的 課題는 청소년 위탁시설의 확충과 청소년단체들의 教育적 기능의 강화가 이루어져야 하겠고, 근로 청소년을 위한 야간특별학교와 산업체부설학교의 활성화방안이 모색되어야 하겠으며, 私設강습소의 功績력을 提高하기 위한 행정적 감독과 재정적 지원대책이 수립되어야 하겠다. 그리고 청소년을 에워싸고 있는 문화적 환경을 淨化하여 성인위주의 문화형태를 탈피, 청소년들의 독자적인 문화형태를 反文化로 간주하는 그릇된 認識을 拂拭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 4. 性教育的 側面

썸은 인간이 태어나면서부터 관계하는 原初의 성질의 것으로, 사람에 따라 程度의 차이는 있지만 全生涯에 걸쳐 의식적 또는 무의식적으로 인간의 行動을 지배하는 것 중의 하나다. 프로이드(S. Freud)가 썸을 인간의 기본적 本能으로 생각한 것이나, 매슬로우(A. Maslow)가 性欲을 인간의 가장 저수준의 욕구 중의 하나로 分類한 것도 결국은 썸이 인간 생활에서 떼어놓을 수 없는 한 部分이기 때문이다.

幼兒期에 아이들이 던지는 질문 가운데는 突연하나마 性에 대한 관심을 내포하고 있는 것이 많다. 이러한 性에 대한 호기심을 어릴적부터 자연스럽게 해소시켜가는 것이 性教育<sup>(56)</sup>의 출발점이라고 볼 수 있으며, 教育전문가들은 성교육의 실시시기가 빠를수록 좋다는데에 의견을 같이하고 있다. 그러나 유아기나 아동기와는 달리 청소년기에 性教育的 必要性이 특히 강조되는 것은 아마도 이 시기가 육체적, 신체적으로 큰 변화를 겪는 시기로서, 성적으로 성숙되어 감에 따라 자신의 내부에서 성적 충동이 강해지고 異性에 대한 호기심이 높아지면서 자기 주위에서 밀려드는 성적 자극과 유혹에 쉽게 넘어가 많은 문제과제의 소지를 안게 되기 때문이다. 더우기 썸은 청소년들의 가장 큰 관심사 중의 하나며, 청소년들에 대해 걱정하는 성인들의 최대 관심사 중의 하나<sup>(57)</sup>가 되기 때문이기도 하다.

우리의 전통적 유교사회에서는 성교섭을 포함한 남녀간의 교제를 「男女 七歲 不同席」이라는 엄격한 道德律로 금지해 왔고, 10~15세에 결혼시키던 사회풍습으로 인해 지금과 같은 청소년들의 性的 비행이 크게 사회문제화 되지 않았다. 그러나 해방 이후 유교적 가치관이 점차 퇴색하고 서구의 성개방의 풍조가 우리 사회에 침투하면서 청소년들의 思考方式이나 行動樣式에 많은 변화를 가져오게 하였으며, 여기에 결혼시기의 연장, 기성세대의 이중적인 생활태도, 향락산업의 번창, 중심적 가치의 상실 등에서 비롯되는 性道德의 혼란이 가중되어 청소년들의 성비행이 날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게 되었다. 오늘날 우리의 청소년들이 겪는 성적 갈등을 합리적으로 해소, 性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을 심어주는 教育적 준비가 제대로 갖추어져 있지 못한 우리의 現實을 감안할 때, 청소년들에게 올바른 性教育을 실시해야 할 필요성은 그 어느 때 보다 높다 하겠으며, 건전하고 올바른 性教育을 통하여 性에 관한 과학적인 지식을 체계있게 전달하고 사랑과 결혼의 기초가 되는 性道義를 확립<sup>(58)</sup>시켜 주어야 하겠다.

이제 性教育 측면에서 문제가 되는 사항을 몇 가지 지적하면, 첫째, 청소년들의 의식 및 성지식의 실태에 나타난 문제다. 「사랑의 전화」에 고민을 호소해 온 내용가운데 「성에 대한 상담」(22%)과 「이성문제」(20%)

(56) 性教育이란 남성 및 여성간의 정신적, 육체적인 관계를 올바르게 설정하도록 하기 위한 지도 또는 배책을 말하며 純潔教育이라는 용어와 더불어 쓰이고 있다. 우리나라 성인들이 갖고 있는 성교육에 대한 기본적인 입장은 다음의 네가지로 대별된다. ① 성교육은 필요없다는 입장, ② 때가 되면 자연히 알게 될 문제니 내버려두자는 입장, ③ 성교육을 하려해도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다는 입장, ④ 성에 관한 것은 무엇이든지 빠뜨리지 않고 가르쳐 주어야 한다는 입장.

朱貞一, 白庚壬, 「性教育—0세부터 사춘기까지—」, 서울: 샘터, 1982, 13—14면 참조.

(57) R. M. Lerner & G. B. Spanier, op. cit., p. 289.

(58) 梨花女大人開發達研究所, 「性教育—計劃과 實際—」, 서울: 教育出版社, 1971, 15—16면.

가 가장 높은 비율<sup>(59)</sup>을 보이고 있고, 서울 시내 남녀 고교생의 약 71%가 이성교제의 경향이 있다는 조사연구<sup>(60)</sup>나 남고생의 73.7%, 여고생의 61.8%가 이성교제의 필요성을 긍정하고 있다는 조사연구<sup>(61)</sup>는 청소년들의 성애 대한 의식이 어느 단계에 왔는가를 실감케 한다. 또한 고교생들의 성지식의 입수경로를 보면, 趙貞淑의 경우 주간지나 잡지(37.6%), 라디오·T.V.(43.6%), 선생님(9.1%), 부모·형제(5.6%)<sup>(62)</sup>의 순으로, 朴末順의 경우에는 주간지·잡지(59.1%), 친구(24.5%), 교사(8.5%)<sup>(63)</sup>의 순으로 밝혀져 그릇된 성지식에 의한 심비행이 증가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보겠다.

둘째, 매스콤을 통한 자극의 문제다. 치청·강간기사(19%), 신문소설(15.6%), 나체그림·사진(17.2%) 등을 읽거나 보고 성격 충동을 느끼는 학생이 51.8%<sup>(64)</sup>에 이르고 있고, 영화나 T.V.에서 성자극 장면을 대했을 때 많은 남녀 고등학생들이 호기심이나 민담감 내지는 강한 자극을 받았다고 반응<sup>(65)</sup>함으로써 이를 실증적으로 입증하고 있다.

셋째, 성교육 실시방법의 문제다. 성교육의 실시 필요에 대해서는 教師의 98.2%, 父母의 83.6%가 支持<sup>(66)</sup>하고 있으나 그 방법에 있어서는 교사, 부모, 학생집단 간에 차이를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文敎部가 지난 '82년에 「성교육 학습지도안」을 마련, 각급학교의 性教育을 강화토록 하였으나 一線教師(중등교사)들은 성교육을 지도하는데 있어 효과적인 자료개발(46.7%), 성지식 부족(28.3%), 지도기술미숙(16.7%) 등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sup>(67)</sup>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성교육 방법에 대해 교사들은 생물, 가정, 자유시간에 조금씩(47.2%), 부모들은 특별강의를 통한 방법(54.2%)<sup>(68)</sup>에 가장 높은 응답을 보인 반면, 학생들은 男學生의 경우 경력많은 異性教師(33.8%), 전문가(26.6%), 교과목교사(22.6%)에게서, 女學生은 전문가(29.5%), 교과목교사(24.0%), 경력많은 同性教師(22.1%)에게서 성교육을 받고 싶다고 응답<sup>(69)</sup>함으로써 양측되는 견해차를 엿볼 수 있게 한다.

이러한 문제에 대한 청소년 성교육적 측면의 課題는 오늘의 청소년들의 이성교제 실태나 願望을 反映하여 「男女共學制」를 확대 실시해야 하겠다는 점이다. 또한 매스콤의 지도·감독을 強化하고 성교육담당 專門教師의 양성체계가 확립되어야 하겠다.

### 5. 價値觀教育의 側面

가치관은 態度나 價値의 개념<sup>(70)</sup>과 밀접히 관련되어 있는 것으로, 학문적 관점에 따라 또는 학자에 따라 다양하게 정의되고 있다. 그중 몇 가지 예를 보면, 클루크혼(Kluckhohn, C)은 “자연 속의 인간의 의지, 인간과 인간과의 관계의 行動에 영향을 미치고 인간對 자연, 인간관계에서 바람직한 것과 바람직하지 않은 것에 대한 一般化되고 組織화된 개념”<sup>(71)</sup>이라고 정의했고, 뉴콤(Newcomb, T. M.)은 “特定の 사물들에 대한 태도들을 종합할 수 있는 共通點”<sup>(72)</sup>이라고 했으며, 朴容憲은 “사회적 統合과 安定을 위해 있어야 할 바람직한 사회적 標準”<sup>(73)</sup>으로 보고 있다. 또한 鄭範謨는 “여러가지 인간문제에 관하여 바람직한 것 또는 하여야 할 것에 관한 一般의인 생각 또는 개념”<sup>(74)</sup>이라고 정의하고 있으며, 黃禎奎는 가치관의 공통된 特徵으로

(59) 國際青少年文化交流會, 「韓國青少年大觀」, 서울: 經濟評論社, 1984, 268面.

(60) 趙貞淑, 「高校生の 性教育 必要性에 關한 考察」, (未刊行碩士學位論文, 東國大學校 教育大學院, 1981), 25面.

(61) 朴末順, 「高等學生의 性意識에 關한 研究」, (未刊行碩士學位論文, 高麗大學校 教育大學院, 1983), 19面.

(62) 趙貞淑, 「前揭書」, 33面.

(63) 朴末順, 「前揭書」, 27面.

(64) 行政改革調査委員會委託調査研究報告書, 「前揭書」, 228面.

(65) 趙貞淑, 朴末順의 연구 참조.

(66) 趙在明, 「女子中學生을 위한 性教育內容探索」, (未刊行碩士學位論文, 忠北大學校 教育大學院, 1981), 74面.

(67) 權赫昌, 「中等教師의 知知識과 性教育實態에 關한 調査研究」, (未刊行碩士學位論文, 仁何大學校 教育大學院, 1983),

56-61面.

(68) 趙在明, 「前揭書」, 81面.

(69) 朴末順, 「前揭書」, 28面.

(70) 態度는 好·不好, 贊成·不贊成의 방향을 갖는 정의적 속성으로, 價値는 是非, 善惡 등의 판단 방향을 갖는 속성으로 파악되고 있다.

(71) C. Kluckhohn, "Values and value orientation in the theory of action," in Parsons, T. & Shils, E.A. (ed.),

「Toward a General Theory of Action」, (New York: Harper & Row, 1962), p.411에서 인용한 黃禎奎, 「教育評價」,

서울: 教育出版社, 1973, 614面.

(72) 朴容憲, 「態度와 價値觀의 教育」, 鄭元植(編), 「知力과 情意의 教育」, 서울: 培英社, 1976, 208面.

(73) 朴容憲, 「價値觀과 教育」, 「社會變化에 對應하는 生活指導」, 서울: 서울特別市教育委員會, 1975, 108面.

(74) 鄭範謨, 「價値觀과 教育」, 서울: 培英社, 1980, 17面.

① 가치관은 문화적으로 개인에게 內面化된 체계이며, ② 가치관은 개인의 어떤 선택상황에 대한 評價의 기준이며, ③ 가치관은 이러한 평가적 기준의 一般化되고 組織化된 유형이라는 점<sup>(75)</sup>을 들고 있다.

따라서 가치관이란 개인이 부딪치는 여러가지 사태에 方向性(orientation)을 갖고 일관성있게 나타나는 내면화된 개인의 신념 또는 가치체계라고 할 수 있겠다.

靑소년기는 正體를 확립할 시기이기 때문에 이 시기에 올바른 가치관을 定立한다는 것은 곧 올바른 삶의 방향 설정과 직결된다고 볼 수 있으며, 이런 점에서 靑소년의 가치관 교육이 중요하다고 하겠다. 靑소년 시절에 人生의 價値를 어디에 두느냐 하는 문제는 오늘날과 같이 가치 혼란의 시대에 있어서는 매우 중요한 과제가 된다. 特別히, '60年代 이후로 工業化에 박차를 가해온 우리로서는 전통적 가치관과 새로운 가치관의 갈등이 매우 심각하게 노정되고 있는 실정이고, 물질적인 여유에 따른 정신적인 불모와 퇴폐의 문제가 부각되면서 이것이 靑少年들에게 미치는 否定的 영향이 간과할 수 없는 단계에 이르고 있다는 위기의식이 가치관 교육의 필요성을 한층 더 強化시켜 주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이제 靑소년 탈선의 요인이 되는 가치관 측면의 문제를 보면, 첫째, 교과서와 현실의 괴리에 따른 靑소년 의식의 문제다. 오늘의 靑少年들은 교과서를 통해 배운 것을 정직하게 배운대로 생활에 實踐하면 사회에서 바보 취급을 받는 사회구조의 모순으로 인해 바람직한 가치관의 定立이 장애를 받는다는 점이다. 李載昌 등이 학생, 근로 靑소년, 비행 靑소년 등 總 3,120名을 대상으로 실시한 연구에서도 그들이 추구하는 가치(인간주의, 명분과 정당주의, 변화와 업적지향적인 가치)와 현실인식(물질주의, 실리주의, 편법주의, 현상유지 위주의 안경주의, 귀속주의 등이 지배하는 사회) 간에는 많은 차이가 있고 이들이 認識한 현실에 대처하기 위해 否定的 態度를 갖게 되고 실제의 行動傾向도 否定的으로 나타나게 된다<sup>(76)</sup>고 밝히고 있다.

둘째, 기성세대들의 이중적 가치관의 문제다. 성인들이 조성, 조강해 놓은 금전·물질만능사회, 이기심이 앞선 사회, 향락사회, 권력지향사회 속에서 자신들의 座標를 설정하지 못하고 價値 葛藤을 겪는 靑소년들에게 성인이 적용하는 兩面的 가치관이 靑소년의 일탈을 부채질하고 있다는 점이다. 즉 靑소년들의 향락주의 적이고 소비지향적 행동에 대해서 성인들이 꾸짖을 때는 道德主義의 가치관을 적용하고 靑소년들의 불량한 학교 성적을 나무라고, 그들의 직업적 진로를 걱정할 때는 物質主義의 이고 成就志向의 가치관에 따라 행동<sup>(77)</sup>하는 경향이 짙기 때문이다.

셋째, 지나친 學歷 중시의 사회풍토 문제다. 국민학교 시절부터 靑소년들의 최대 목표는 일류대학 일류학과를 나와 남보다 먼저 出世하는 것이며, 이 대열에서 처지는 靑소년들은 가정, 학교, 사회의 차가운 냉대 속에서 인생을 살아가야 한다는 점이다. 그리하여 건전한 人生觀이나 職業觀이 정착되지 못하고 있으며, 연고주의와 파벌의식을 강화시키는 모순을 빚어내고 있다는 점이다. 靑소년 시절에 원대한 꿈을 키워주는 교육이 되지 못하고 小我的인 측면의 교육에 집착하는 오늘의 우리 사회풍토는 靑소년들의 올바른 價値觀 형성이라는 차원에서 볼 때 매우 우려되는 상황임에 틀림없다고 하겠다.

이러한 문제점에 대한 가치관교육 측면의 課題를 든다면, 사회전반의 構造的 모순의 척결과 의식개혁이 先行되어야 하겠다는 점이다. 靑소년들에게 否定的 시각으로 작용할 수 있는 제반 사회환경을 정확함으로써 교과서의 論理가 어느 정도 현실인식과 맞물려 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또한 기성세대 價値觀의 일방적 주입에서 탈피하여 일관된 가치의 적용이 필요하며, 건전한 人生觀과 職業觀의 定立을 위한 사회풍토의 개선과 학교 교육과정에서의 價値觀教育<sup>(78)</sup>의 강화가 요청된다. 가치갈등상황에서 가치를 선택하고 그것을 내면화하여 명료화시키는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교육이 학교를 통해 이루어져야 하겠다.

## V. 結 論

以上에서 오늘의 靑少年을 이해하기 위한 靑소년의 개념과 발달상의 諸 特性을 고찰하고, 靑소년 비행의

(75) 黃楨奎, 「前揭書」, 617面.

(76) 李載昌外, 「前揭書」, 217—218面.

(77) 李相周, 「前揭論文」, 41—42面.

(78) 가치관의 학습원리에 대해서는 朴容憲, “態度와 價値觀의 教育”, 鄭元植(編), 「前揭書」, 238—249면을 참조할 것.

동향과 특징을 통계자료에 기초, 分析하였으며, 靑少年 教育의 차원에서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 가정, 학교, 사회, 성, 가치관교육의 문제점과 과제를 단편적으로 살펴 보았다.

오늘의 靑少年은 내일의 우리 社會를 이끌어갈 주인공이라는 점에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그 나라의 靑少年을 보면 그 나라의 將來를 알 수 있다」는 말은 청소년이 既成世代之의 관심 밖으로 밀려나 방치될 수 없는 핵심제거임을 강조하고 있다. 사실상 靑少年의 問題라고 하는 것도 既成世代之의 눈에 비친 굴절된 모습이고 보면, 문제해결의 열쇠도 靑少年들에게서 보다는 既成世代之를 觀照하는 데서 찾아져야 할 것이다. 미성숙한 世代之에 대한 성숙한 世代之의 교육적 책임이 강조되는 것도 이런 연유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非教育的인 環境을 조성해 놓고 그 울타리 안에 사는 청소년들의 행동양식과 사고방식 만을 위협시 또는 이단시하는 立場은 문제해결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問題兒의 裏面에는 問題父母가 있다는 인식이 청소년 문제의 해결과정에도 적용되어야 한다고 본다. 즉 청소년이 몸담고 있는 우리의 家庭, 學校, 社會가 교육적 측면에서 바람직한 상황에 있는가? 라는 질문에 솔직한 응답을 할 수 있을 때 靑少年의 問題가 사회 전체의 공감 속에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結論의으로, 靑少年들의 꿈과 理想을 펼칠 수 있는 教育環境이 마련되고, 「사회전체가 교실」이라는 새로운 認識이 확산되어야 하겠다.

### 參 考 文 獻

1. 경제기획원, 한국통계연감, 서울:경제기획원조사통계국, 1984.
2. 具頌會, “靑少年問題와 教育의 役割”, 敎育, 제11호(1979. 12).
3. 國際靑少年文化交流會, 韓國靑少年大觀, 서울:經濟評論社, 1984.
4. 權純永外, 韓國靑少年非行的 說明, 서울:三星出版社, 1964.
5. 權彝鍾, 社會敎育과 靑少年指導, 서울:培英社, 1984.
6. 權赫昌, “中等敎師의 性知識과 性敎育實態에 관한 調查研究”, 未刊行碩士學位論文, 仁何大學校 敎育大學院, 1983.
7. 金慶淑, “韓國의 靑少年非行과 그 善導方案에 관한 研究”, 未刊行碩士學位論文, 梨花女子大學校 敎育大學院, 1973.
8. 金信一, “學校外 靑少年들의 實態와 敎育的 必要”, 유네스코 韓國委員會, 學校外 靑少年敎育, 서울:유네스코韓國委員會, 1982.
9. 金泳謨, 靑少年의 欲求 및 指導指標의 開發에 관한 研究, 서울:韓國靑少年聯盟附設 韓國靑少年研究所, 1985.
10. 金鍾國外, 靑少年의 意識에 관한 調查研究報告書, 서울:서울靑少年會館, 1976.
11. 大韓 YMCA 聯盟, 한국의 젊은이 그들은 누구인가, 서울:大韓 YMCA 聯盟, 1979.
12. 朴末順, “高等學生의 性意識에 관한 研究”, 未刊行碩士學位論文, 高麗大學校 敎育大學院, 1983.
13. 徐明原, 敎育原理, 서울:益文社, 1970.
14. 서울特別市 敎育委員會, 社會變化에 對應하는 生活指導, 서울:서울特別市 敎育委員會, 1975.
15. 峨山社會福祉事業財團, 現代社會와 靑少年, 서울:峨山社會福祉事業財團, 1983.
16. 安珍植, “靑少年의 家庭環境과 價値觀과의 關係에 관한 一研究”, 未刊行碩士學位論文, 梨花女子大學校 敎育大學院, 1970.
17. 梁春, 靑少年問題와 老人問題, 서울:正音社, 1984.
18. 吳世敬(編), 大法典, 서울:法典出版社, 1984.
19. 李起龍, “靑少年問題의 實證的 考察”, 牧園大學論文集, 第四輯, 1981.
20. 李星珍, 朴桂洙, 李揆成(編), 國家發展과 靑少年, 서울:培英社, 1979.
21. 李載昌外, 靑少年 意識構造 및 形成背景, 서울:韓國敎育開發院, 1983.



22. \_\_\_\_\_, 青少年問題 綜合診斷研究, 서울:韓國教育開發院, 1981.
23. 梨花女大人間發達研究所, 性教育, 서울:教育出版社, 1971.
24. 李勳求, 宋仁燮, 青少年非行의 社會心理學的 側面, 서울:韓國行動科學研究所, 1979.
25. 鄭範漢, 價値觀과 教育, 서울:培英社, 1980.
26. 鄭元植(編), 知力과 情意의 教育, 서울:培英社, 1976.
27. 鄭喆熙, “青少年教育和 餘暇善用”, *새교육*, 통권 제319호, (1981. 5)
28. 趙在明, “女子中學生을 위한 性教育內容探索”, 未刊行碩士學位論文, 忠北大學校 教育大學院, 1981.
29. 趙貞淑, “高校生の 性教育 必要性에 關한 考察”, 未刊行碩士學位論文, 東國大學校 教育大學院, 1981.
30. 朱貞一, 白庚任, 性教育 —0세부터 사춘기까지—, 서울:샘터, 1982.
31. 青少年對策委員會, 青少年白書, 서울:國務總理企劃調整室, 1981.
32. \_\_\_\_\_, 青少年白書, 서울:文教部, 1983, 1984.
33. 韓國教育學會, 社會教育의 諸問題, 서울:能力開發, 1974.
34. 韓完相, 現代社會와 青年文化, 서울:法文社, 1974.
35. 咸鍾漢, 青少年:理解量 위한 接近, 서울:尚潮社, 1982.
36. 行政改革調査委員會委託調査研究報告書, 青少年 行政改善을 위한 研究, 서울:中央教育研究所, 1968.
37. 홍남진, “청소년단체의 사회교육적 기능에 관한 연구”, 未刊行碩士學位論文, 梨花女子大學校教育大學院, 1977.
38. 黃應淵, “學校教育和 國民情緒의 醇化, 教育評論, (1980. 8).
39. 黃禎奎, 教育評價, 서울:教育出版社, 1973.
40. 黃禎奎外, 韓國 青少年的 生活과 產業社會의 社會科教育, 서울:韓國精神文化研究院, 1982.
41. 黃宗建, 社會教育, 서울:現代教育叢書出版社, 1962.
42. Haviland, J.M. & Scarborough, H.S. *Adolescent Development in Contemporary Society*. New York: D. Van Nostrand Company, 1981.
43. Hawes, G.R. & Hawes, L.S. *The Concise Dictionary of Education*. New York: Van Nastrand Reinhold Company, 1982.
44. Hurlock, E.B. *Adolescent Development*. New York: McGraw-Hill Book Company, Inc., 1955.
45. \_\_\_\_\_. *Developmental Psychology*. 4th. ed. New Delhi: Tata McGraw-Hill Publishing Company, 1975.
46. Lerner, R.M. & Spanier, G.B. *Adolescent Development: A life span perspective*. New York: McGraw-Hill Inc., 1980.
47. Rogers, D. *The Psychology of Adolescence*, 3rd. ed. Englewood cliffs, N.J.: Prentice-Hall Inc., 1977.
48. Wattenberg, W.W. *The Adolescent Years*, 2nd. ed. New York: Harcourt Brace Jovanovich, Inc., 1973.
49. 東亞日報, 1981年 5月 8日字.
50. 朝鮮日報, 1981年 3月 24日字.
51. 한국일보, 1985年 5月 4日字.